

## 일상(日常)의 의미



“2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 7,14)

제 전화기에는 “맴맴맴매 ~”라고 우는 참매미소리가 녹음 되어 있습니다. 한 겨울에 여름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요즘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매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왠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곤해서입니다. 매미의 생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매미는 한해도 아닌 한철 살이를 한다는 것과 그 한철을 살기 위해 길게는 12-3년씩 땅속에서 굶뎠이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매미의 울음 소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지내고 나온 간절한 몸짓이 아닐까요?

우리는 전례력에 따라 기다림의 시기를 마치고 한 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준비 것을 하였습니다. 우선 판공성사의 도움을 받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가야 할 길로 잘 가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고쳐야 할 모습이 있거나 가야 할 길로 가고 있지 못하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려는 새로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황님의 가르침처럼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않기’,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않기’, ‘가족들에게 더 잘 해 주기’, ‘아침·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잘 바치기’ 등 특별하고 거창한 일을 새롭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며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잘 해야지’ 새롭게 각오를 다집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새롭게 각오를 가진다면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일상(日常)의 성화(聖化)”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해

야 할 것은 일상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노는 등 매일 같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매 순간과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잘 때도 일할 때도 쉬거나 놀 때도 온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노력을 떠나 특별하고 짜릿한 무엇을 찾아다닌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서는 기도하는 중에만, 성당에만, 착한 사람과만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가족의 생활을 위해 일터에 있을 때에도,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느끼는 사람과도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하느님을 찾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여름 한철은 땅 속에서 긴 시간을 지내고 나온 매미의 간절한 몸짓을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하느님을 찾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성탄을 축하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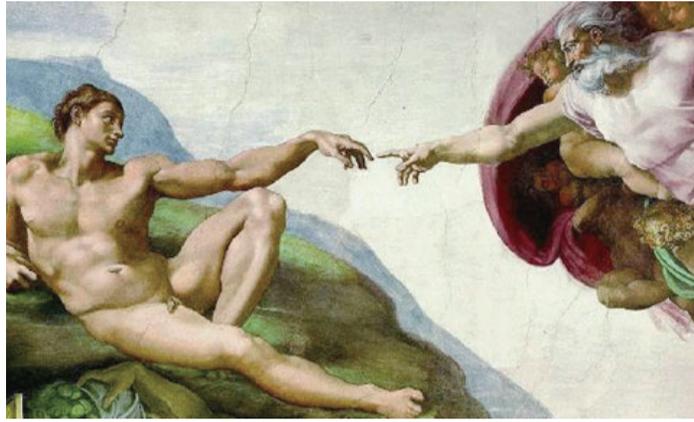


※ 45호부터 1면 작품사진을 연재해 주신 도예가 김종숙 요안나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교리 (9)

인간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 생겨라.”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작품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이처럼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알아 사랑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고,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간추



린 가톨릭교회 교리서, 53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분이나 능력, 인종이나 민족 등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의 고유한 본성 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요 인간의 가장 내밀한 것이다. 인간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게 되며, 육체 역시 하느님의 존엄성에 참여한다.”(같은 책, 같은 쪽) 영혼과 육체는 단일한 인간 본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가진 영적인 특징을 통해 당신과 친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금빛**

교황님 한 말씀

축복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신앙을 아예 갖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존중하며, 또한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



본당 소개

대구 달성 세천성당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위치한 세천성당(주임신부: 안동욱 마태오)은 2019년 1월 서재성당과 다사성당에서 분가하여 설립된 역사가 짧은 본당입니다. 인근 공장지대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고 있으나, 신자 수 100여 명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확보된 부지 위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 수 확대와 선교를 위하여 합심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자들 스스로 성전과 본당 주변을 꾸미고 벽화를 합동으로 그렸으며, 꽃밭을 가꾸고 성전 주변을 다듬어가며 새로운 신축 성전 건립을 위하여 갖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동욱 마태오 주임신부는 2023년 “친교의 해”를 맞아 본당 공동체의 결속과 친교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각 구역별 모임을 결성하고 활성화시키며 전 교우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취재: 이춘식 하롤드 | 살레시오 기자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주님께 올립니다.



We lift them up to the Lord.

[영어] 위 리프트 템 업 투 더 로드



神にお捧げいたします。

[일본어] 카미니 오사사게 이 따 시 마 스



我们全心归向上主。

[중국어] 위 먼 전 신 구이시양 상 주



Chúng con đang hướng về Chúa.

[베트남어] 쯙 쏬 당 흐엉 베 주아



Lo tenemos levantado hacia el Señor.

[스페인어] 로 페네모스 레반파도 아씨아 엘 세뇨르

교회의 상징들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A(알파)와 Ω(오메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A는 그리스말 첫 글자이고 Ω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A와 Ω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창조 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묵시 1,8; 21,6; 22,13 참조) **금빛**

찬미받으소서(8)

# 세계적 불평등



### ▶ 읽기

48항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의 체험과 과학연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 훼손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 생각하기

Q.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태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이 문제에 가장 적게 영향을 끼친 이들입니다. 그들은 생태계 파괴에 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 파괴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은 생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 가며 부유한 국가들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

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 실천하기

「찬미받으소서」 52항中 :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국경도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관심의 세계화를 위한 공간은 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구라는 공간성에 묶인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 실천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보다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금빛**



tvN STORY, 『사피엔스 스튜디오』, 지구한계의 경계에서

생태 영성 (1)

##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나비 효과’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상학자 에드워드 N. 로렌츠가 1972년에 발표한 이론이다. 오늘날 이 말은 날씨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영역 등으로 확대되어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이 ‘나비 효과’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단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트린 사건은 모든 피조물의 상호연결성을 잇고 살아온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숙고와 성찰의 시간이라 여겨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극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피조물의 창조가 ‘관계성’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IS 2장) 하늘-땅, 빛(낮)-어둠(밤), 땅-바다, 풀-과일나무, 해-달, ... 창조 사업-쉼, 창조주 하느님-피조물인 우리. 이 관계성은 존재의 조화로움 속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 2023~2024년 사목 지침에 따라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참 친교’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상호연결성을 숙고하면서 이 해를 출발하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이 출발은 크고 작은 열매들로 우리의 한해를 풍성하게 해 줄 것이라 믿는다.

※ 수고해주신 김호균 마르코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호부터 윤 에피파니아 수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윤 에피파니아 수녀 (예수성심시녀회)



몸의 신학 (7)

## 몸, 인격적인 공동체성의 표지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도록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이 관계맺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해나간다.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인격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맺음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습은 육신, 즉 몸을 가진 존재이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창세 2,21-23) 첫 인간의 인격적 관계맺음을 실현시키는 것은 뼈와 살, 즉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만남을 통해서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몸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형태의 이단들이 있다. 몸을 영혼이 간혀있는 감옥으로 이해하고 구원을 위해 벗어던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영지주의, 또 영적인 것은 선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이라 생각하며 철저히 금욕을 강요했던 마니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몸에 대한 오해는 극단적 금욕주의 또는 몸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버린 극단적 쾌락주의로 흘러가며, 사람의 몸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대한 이원론적인 이해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가르침과는 다른 부분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신(몸)은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요, 육신이 없는 영혼은 그저 귀신일 뿐이다. 사람은 몸과 영혼의 단일화된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느님의 영인 영혼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 몸을 통해 인격적 공동체성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부부 이야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저희 부부는 직장 선후배로 만나 짧은 비밀연애 끝에, 많은 사람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운동을 잘하고 여행과 사진찍기를 즐기는 호탕하고 매력적인 남자였고, 저도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관심과 칭찬을 받으며 호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연애 시절은 우리에게 추억으로만 남겠지만, 결혼해서 하는 일들은 모두 우리의 역사의 될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른스럽고 따뜻한 모습에 반해 혼인을 결심했고, 혼인 생활도 연애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혼인 후 두 아이를 키우는 맛벌이 부부로서의 삶은, 고되고 지친 일상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가 좋아했던 매력적인 모습들은 사라지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쌓여만 갔습니다. 시골 대가족의 만머느리가 된 저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저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으며, 저도 가정에 소홀한 프란치스코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서적 이혼’ 상태로 버티던 저희에게 본당 ME부부들께서 강력하게 ME주말을 권유해 주셨고, 저는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더욱 숨긴 채 어렵게 주말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ME주말은 저희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각자는 열심히 살고 인정받고 있었지만, 혼인생활에서는 불량품처럼 서로 맞지 않아 수리 불가의 상태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우다 보니 스스로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ME주말에서 나와 배우자와의 다른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희처럼 다른 부부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느님께 사랑받는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생활에서 불량품 같았던 저희는 다시 반짝이는 신제품이 되어 서로를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인은 배우자의 인생을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란치스코의 인생(삶)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프란치스코를 제 삶 안에 초대하지도 못한 채 저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고 화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ME를 체험한 것은 저희 부부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저희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언제나 저희 부부를 비추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손찬욱 프란치스코, 이혜정 모니카 부부 (ME 대구협의회)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11)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

이때부터 ~~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누나

부모님과 함께 가족 사진 앨범을 보았습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 사진이기에 그때를 추억하며 가슴이 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속 손을 모으고 퐁퐁망망한 눈을 가진 여자 아이는 저의 누나입니다.

50년이 넘는 사진이지요. 지금은 어느덧 중년 수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가족을 통하여 예전부터 준비시키셨나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셨어요, 하느님?”

그때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온 가족이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어느덧 부모님의 신앙은 저희에게 전해졌고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신앙을 전해주시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 나눌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을 글(300자 내외)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dgsalesio@naver.com (보내실 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입)

■ 문의: 053-250-3077 • 3114

추억속으로

성탄예술제



1928.12.25.

1928년 12월 25일 가톨릭청년회



1985년 범어성당 성탄예술제

(제공: 교구사료실)

## 부모와 자녀 관계 (9)

## 자녀를 향한 총애하는 마음, 그리고 안아주기

신앙인에게 12월은 기다림과 탄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자녀를 만나 부모가 된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의 복잡한 감정과 함께 신기하고 또 특별해서 남달리 이쁘기만 했던 자녀에 대한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런 자녀를 향한 총애의 마음을 지속하면서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유능하고 기능적으로 능숙한 부모 역할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균형을 이룬 성숙한 어른으로 자녀 곁을 지켜내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면에서는 총애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품어서 반응하는, '잘 안아주기'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가 "엄마(아빠), 안아줘!"라고 해서 하는 안아주기를 포함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모의 안아주기는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안정감을 주고 좋은 느낌을 교류하는 신체적 접촉은 산소와 같이 꼭 필요한 안아주기입니다.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사랑이 곱플 때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몸으로 편안하게 안아주기입니다. 자녀가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자녀의 반응에 무너지지 않고 자녀와 눈을 맞춰 공감하는 듣기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잘 구별해서 "그런 마음 이어도 괜찮아"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안아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믿어주는 협조자가 되어 안아주기입니다. 자녀가 자기 주인으로서 대안을 찾고 실천하고자 할 때 부모의 생각으로 방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아줍니다. **넷째**, 자녀가 공

부가 어렵거나 일이 힘들고 불안해서 핑계를 찾아, 또는 실패한 모습으로 부모를 찾으면 어른인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환영하며 격려와 지지로 든든하게 안아줍니다. **다섯째**, 자녀가 자신이나 무엇인가에 실망하고 부모를 탓하며 짜증과 화를 내면 어른인 부모는 같이 화내지 않고 공감으로 소화해서 자녀가 죄책감에 괴롭지 않게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실수를 반복한 후 또는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면 부모는 즐겁게 부모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자녀가 모방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친구처럼 안아줍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1코린 13,11)

자녀는 기쁨과 행복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총애를 내면화하고 풍부한 내용의 안아주기로 대접받으면 자신이 '사랑과 존중을 받는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인식된 느낌은 건강한 자기를 만들고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로부터 받는 대접의 내용과 방식으로 자녀는 자신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어른의 길 위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 편지글

##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인 지원이에게

## - 출산한 엄마가 아기에게 -

지원아 안녕?

엄마는 작년 겨울 대림절 동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매일 기도를 했었다. 우리 가정에 선물을 받고 싶다고 아기천사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기도였어. 간절한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해주셨고 지원이를 만나게 되었지.

임신기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흘러 온 행일이 물들어 갈 때 지원이를 만나겠지? 하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설레었어. 손뽀아 널 기다렸고 마침내 세상에 나온 그 순간,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벅차오름을 엄마아빠는 절대 잊지 못할거야. 말은 못하지만 너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작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나온다고 고생했을 지원이를 생각하면 너무 대견해 고마워.

그리고 지원이와 엄마는 더욱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어. 엄마와 생일이 같아. 엄마의 가장 기억에 남고 큰 생일선물이란다. 아가야 우리 매년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가자.

한 달 남짓이지만 함께한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엄마아빠의 부족

하고 서툰 손길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지원이의 모습이 엄마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하단다. 지금 이 순간 아빠 품에 잠들어 자는 지원이의 썩썩한 숨소리, 오늘의 지원이 얼굴, 감촉, 냄새 모두 담아두고 싶고 아빠가 우리 지원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

사랑하는 아가 우리 특별하고 힘들게 만난 인연만큼 엄마아빠가 정말 노력할테니 아가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만 바랄게.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인 너로 인해 우리 가정에 더 큰 행복이 피어나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단다. 사랑한다 아가.

P.S. 지원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동성당 이채문 루치아

※ 엄마 이채문(루치아)는 임신부 축복 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딸 지원이는 2022년 11월에 탄생하였습니다.



김제균·이채문 루치아 부부의 딸 지원이

노년의 명성

# 라떼는 말이야!

“말 많은 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잠해 20,8)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말 많은 자는 자기 자랑과 남의 흉이 대부분이다. 자랑은 인물, 재산, 학벌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남의 흉은 잘못과 허물로 단순하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주관에 개입하면 왜곡된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과 다른 전달로 말미암아 세 사람의 피해자-말한자, 들은자, 대상자-가 생긴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의 생사를 가르듯 잘못 뱀은 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여 사랑이 저주로 바뀐다. 추억은 아름다워 지난 일이 이야기 소재는 될 수 있지만 노년이 내뱉는 ‘나 때는 말이야’는 청년들은 싫어하고 외면하는 말이다. ‘나 때는 말이야’가 젊은 커피 애호가들에 의해 ‘라떼는 말이야!’라는 신조어가 되었다.

인생여정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확연한 경계는 없다. 현재는 과거의 조각보, 미래는 현재가 수를 놓은 손수건이다. 잘못된 조각보를 다시 만들 수 없어 지난 과거가 그립고 후회스럽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지금부터 만들어진다.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유독 애착(?)을 가지는 과거는 되돌릴 수 없기에 회상을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솟아오른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는 아름다운 향수로 남게 마련이다. 과거지향적인 노년의 시야에 청년의 모습은 허점과 실수의 꾸러미로 보여 판단 기준이 ‘나’ 중심의 독선이 자리 잡게 된다.

‘나’ 중심은 ‘너’를 배제하기에 겸손을 멀리하고 교만을 친구로 삼는다. 교만은 독선으로 연결되어 배려와 사랑이 없는 황량한 삶으로 이어진다. 황량한 삶은 용서를 구하는 ‘내 탓’이 아니라 저주를 부르는 ‘네 탓’으로 변해 생명의 문화를 죽음의 문화로 이어지게 한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사

고는 회합보다 분열을, 질서보다 혼란을, 사랑보다 미움을 우선한다. ‘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로 사는 일상이 되어 나날이 피곤 속에 묻힌다. 노년은 청년시절을 경험한 세대이지만 청년은 노년을 경험하지 못해 청년이 노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노년이 청년을 이해하고 보듬어야 하는 데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것은 마치 실천 없는 지도자와 같다. 시대가 변하면 사고도 변해야 하는데 생각은 과거에 머물고 행위는 현재에 있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집착은 우울증, 미래의 두려움은 불안증의 시작이라 한다. 우울증과 불안증의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 컴퓨터 시대에 사는 노년은 나날이 변하는 생활환경이 복잡하고 불편할 것이다.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청년과 소통을 하고 익숙하지 않는 문명의 이기들과 빨리 친해져야 한다. 지금 충실하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라떼는 말이야!’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행할 현명한 행동이 될 것이다.

탈무드에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라.”는 금언이 있다. 첨단을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배워서 실천하는 노년이 존경 받는 시절이다. ‘나’와 똑같이 보다 ‘너’와 더불어 멋있는 일상을 꾸미는 건강한 노년으로 남고 싶다. 아름답고 소중한 과거를 간직하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과 지혜는 나누고 순발력을 닦으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될 것이다. 나보다 더 나은 청년들을 **최상원 토마스** 바라보는 노년이 되기 위하여... (가톨릭신문 명예기자)



활기찬 노년

## 두산성당 요한 성경대학



진주 문산 성당 소풍 사진 (제공: 두산 요한성경대학)

두산성당(주임신부: 이상국 크리슬로코) 요한성경대학을 소개합니다. 요한성경대학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성경대학으로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조심스레 운영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참가 어르신이 65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전 보다 더 많은 약 70명의 어르신이 성경대학을 찾아주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주춤 하였던 성경대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봉사자들도 힘을 얻어 직접 멀치 등을 판매하면서 예산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성경대학은 참가 어르신 및 봉사자 모두의 열정이 모여 올해 하반기에 전문 강사 섭외 및 가을 소풍,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성경대학 참가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전해져 코로나 19로 인해 움추린 다른 본당 시니어성경대학 또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빛**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재료 : 명태껍질 한 줌, 간장 2큰술, 올리고당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통깨 약간, 참기름



명태 껍질을 다듬고 물에 씻어 비린내를 제거한다.

헹구낸 껍질의 물기를 꼭 짜내주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껍질이 돌돌 말릴 때까지 말리거나 팬을 달궈 가볍게 볶아 준다.

양념장 재료들을 볶음팬에 넣어 골고루 휘젓고 덩어리 없이 섞어준 다음 중약불에서 한 번 끓여준다.



껍질을 넣고 함께 볶은 후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한다.



**Tip!** 명태껍질은 피부미용 및 면역력 증진에 매우 효능이 좋다. 두뇌 개발 및 아이들의 성장, 뼈 건강 및 혈액순환 개선 등에 효과가 큰 식품이다.

기자단

“친교의 해”를 시작하며  
- 살레시오 기자단 새해 각오 -

가톨릭 금빛신문! 가족간·세대간 공감을 통하여 생태 생명 존중의 생활화에 앞장서는 꼭 보고 싶은 신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가톨릭 금빛신문’의 환한 빛이 각 가정에 가득히 펼쳐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사훈 승훈베드로



2023년 “친교의 해”를 맞아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묵주기도 바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동수 안드레아



“친교의 해”를 시작하며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살아 움직이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김태진 대건안드레아



희망찬 2023년 “친교의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총 안에서 대화, 경청, 나눔의 실천과 치매 예방에 대한 기사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카타리나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서 우리는 귀엽고 사랑받는 토끼처럼 즐겁고 보람찬 한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김형락 스테파노



2023년 “친교의 해”를 시작하며 이웃에게 먼저 나눔의 손을 내밀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 소피아



“친교의 해”를 맞이하여 이웃 사랑, 선교에 부족했던 점을 실천하는 한해로 다짐해 보며 신앙공동체에 유익한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엘리사벳



새해에는 코로나로 위축된 마음들이 활짝 펴지고 활기차게 예전 모습으로 봉사다운 봉사로 기억에 남는 한해를 소망합니다.

이춘식 하롤드



2023년은 “친교의 해”로서 예수성심과의 친교 이루기, 이웃과의 소통과 사랑 실천, 자연 안에서의 생태 생명의 존귀함의 재인식 등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벨라벳다



“친교의 해”를 맞이하여 초심의 기자다운 마음으로 미력이나마 주님 복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영 도미니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창조물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박헌식 프란치스코



“친교의 해”를 맞이하여 오로지 하나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친교와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소화데레사



산책로

칠곡 송림수변공원



자가용

자가용 네비게이션 ‘송림수변공원’ 검색(성모당 기준 40분)

대중교통

대중교통 남산역(대구3호선) → 칠곡 경대병원역 → 칠곡3 → 구덕네거리 하차(성모당 기준 1시간 15분)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 조환길

주간 : 박상용

편집 :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가족성지순례 (9)

#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

## - 청주 읍성 순교성지 -



### 가는길

**자가용** 자가용 네비게이션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 검색(성모당 기준 2시간 25분)

**대중교통** 버스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 청주고속버스임시터미널(502버스 승차) → 육거리. 산림조합 정류장 하차(성모당 기준 2시간 35분)

**기차** 동대구역(KTX) → 오송역(502버스 승차) → 육거리.산림조합 정류장 하차(성모당 기준 3시간 30분)

서운동 성당은 관할 구역 안에 4곳의 순교지와 1곳의 신앙 증거 터가 있어 2019년에 순교 성지 성당으로 지정된 곳이다. 청주 진영 순교지는 충청도의 5개 진영 가운데 하나로 병인박해 때 오반지 바오로 복자가 압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고 교수형으로 순교한 곳이며, 청주 남문 밖 장터 순교지는 1866년 병인박해가 한창일 때 체포된 김사진 프란치스코 복자가 문초와 형벌을 받고 목이 졸려 순교한 곳이다. 청주 북문 밖 장대 순교지는 장 토마스 복자가 병인박해(1866년) 때 참수형으로 순교한 곳이며, 충청 병영 순교지는 원시오 야고보, 배관겸 프란치스코가 순교한 곳으로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청주옥 신앙 증거 터는 박해 때마다 곳곳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옥살이와 고초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터이다.

청주 진영에서 순교한 복자 오반지는 모진 고문과 형벌을 받으면서도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만 번 죽더라도 예수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소.” “교우로서 본분을 잘 지키고 남에게 빛이 있으면 갚도록 하고 순교하라.”고 했다. 신앙을 증거하시다가 순교한 5위의 복자와 하느님의 종 3위의 삶을 묵상하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되돌아보는 좋은 순례의 길을 적극 추천합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샬레시오 기자



## 53호 가정미션 : 새해를 맞아 가족과 이웃에게 연하장을 써서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 새해계획을 세우시나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2.12.25(주일) - 2023.01.13(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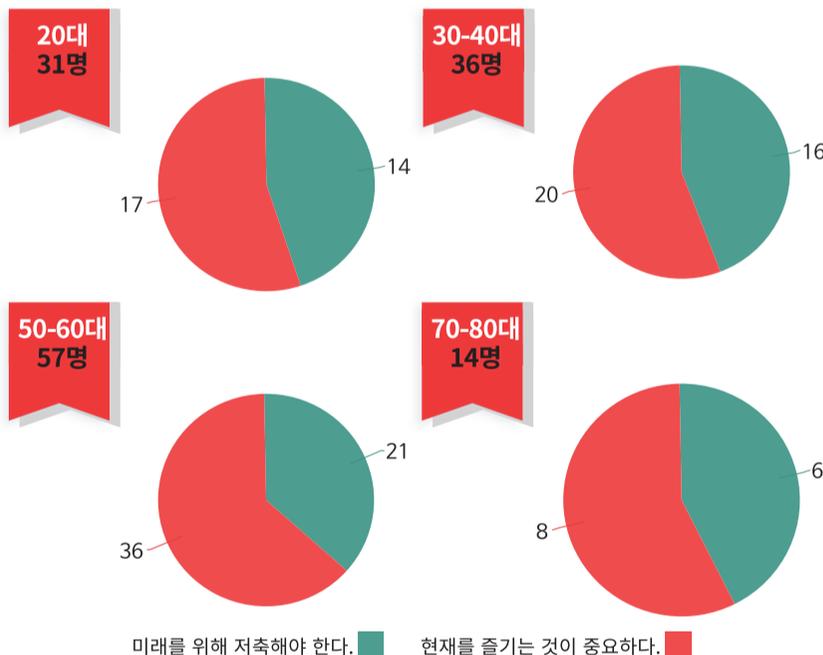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 53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 1. 연령대 : (        세)
- 2. 새해계획을 세우시나요?    네 / 아니오

### 지난(52)호 설문 결과

주제 : 미래를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것과 현재를 즐겁게 보내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 정정

#### 정정 합니다

52호 1면 대문글에 언급된 왕영수 신부님은 마산교구가 아니라 부산교구로 정정합니다.



### 공지사항

#### 독자 투고 모집

가톨릭 금빛신문에서 “나이가 들며 느끼는 감정”에 대한 주제로 500자 내외 분량의 독자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dgsalesio@naver.com  
※보내실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재

**마감** 1월 13일(금)  
**문의** 053-250-3077 · 3114

### 전시

#### 2023년 말씀으로 [숨]을 쉰다 - 캘리그래피전 -

**장소** 가톨릭여성교육관 갤러리 1981  
**작가** 목연 정연서 세라피나  
**기간** 2022.12.30-2023.01.20

### 전시

#### 백합어린이집 졸업전

**장소** 예담갤러리  
**주최** 백합어린이집  
**기간** 2023.01.05-01.17